



## 함박웃음과 함께 솟구치는 가족 사랑

설날, 박물관 나들이에 나서 즐넘기를 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합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 함께 솟구치지 않으면 한 차례도 넘기 힘든 놀이.

이 순간 가족들의 마음은 오직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겠지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금세 호흡도 척척 맞고, 숨이 가빠오지만 웃음은 더욱 터져 나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수록 삶이 빠듯해지면서 하루하루 멎고 살기에도 고달픈 서민들, 새해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풀리지 않는데, 또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지 않겠죠.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어깨는 처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설, 그 날 가족들이 주고받았던, 희망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벼거운 삶을 헤쳐나가야죠.

늘 함께 도와주는 가족의 힘을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 I love MY student



김정우

〈광주광천초교 교사〉

지난 15일, 16년 교사 경력 중 별씨 아홉 번째 졸업식을 치렀다. 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빛 교실에 남아있다 보니 문득 1991년 초임 시절이 떠올랐다.

교육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교사인 나의 초임지는 광산구 본랑이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학교 관사와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플라티너스와 빙나무가 등·하교길을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운동장 트랙 안으로 뛰어 있는 잔디가 방문객을 반기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50분마다 대씩 배차된 시내버스가 교직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그 흔한 사설학원을 수강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전교

## 졸업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생 120여명의 조그마한 학교였다. 학교 관사에 살면서 휴일 근무 60% 이상을 독차지하는 안방마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하게 됐다.

같은 없는(?) 나와 학생들을 불러주는 곳은 학교 운동장이었으며 축구와 야구를 함께하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축구시합 후 우물가에서 서로 등목을 번갈아 밀어주면서 물장구쳤던 일, 밤이 되면 조별로 관사에서 숙식하면서 밤새워 꽃 피운 귀신이야기, 겨울철 교실 난로에서는 모락모락 피어난 고구마와 달걀 냄새 등이 끊임없이 풍물이 많았다.

방과 후에는 잔디밭 구석진 곳에서 들녘에서 일하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풍물놀이와 탈춤 공연을 했다.

각종 매스컴 출연, 광산구민의 날 축하공연과 2박3일 어버이날 효도공연, 학교 행사 출연 등 우리 반은 학급 전원이 참여하는 예술단 그 자체였다.

불과 20여명 밖에 되지 않은 졸업생들을 교실 한 칸에 모아놓고 조촐한 졸업식을 진행했다. 참석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눈시울이 뜨끔거렸던 송사와 답사의 구구절절한 내용들... 그때

들었던 졸업가와 스승의 노래, 교가는 지금도 귀에 맹활약하다.

졸업식이 끝나고 참석한 할머니 한 분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꾸깃꼬깃한 돈을 걷어서 양복 1벌 사 입으라고 호주머니에 넣어주던 촌속 소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95년 초임자를 떠나 도심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초임 학교를 찾아 그때를 회상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간직해온다. 지난해 스승의 날에 초임학교 제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견스럽게 잘 캐운다!’라는 생각도 잠시, 밤새도록 그 시절 졸업사진을 보며 흥분된 마음을 달래었다.

16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무언가를 잊고 살아간다는 헌신함이 밀려온다. 아무튼 오늘 졸업을 한 제자들에게 “졸업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므로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약속했다.

교직생활 16년이 되면서 나에게도 삶의 무기력감이나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가 가끔 있다. 오늘 졸업식에서 열 반 신규 선생님이 첫 제자를 보내면서 흘리는 눈물이 나의 나태함과 오만을 질책하는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제자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2007년 2월 20일 화요일

제17683호 21면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07년 2월 20일 화요일

제17683호 21면

광주일보

www.kwangju.co.kr